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번호 사십사

Jeff Pippenger

2026-02-10

제44번

1844년에 일곱째 날 안식일의 교리는 봉인이 풀렸고, 화이트 자매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교리는 그녀에게 강조되었다. 그녀는 또한 마지막 날들에 성육신 교리가 동일한 하늘의 강조를 지니게 됨을 기록하였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반형적 대속죄일이 개시될 때 언약궤로부터 발하는 특별한 빛을 대표하며, 일곱째 해의 안식년은 반형적 대속죄일이 그 종결에 이를 때 언약궤로부터 발하는 특별한 빛을 대표한다.

성육신 교리는 레위기 23장의 마지막 성회에서 예표된다. 그것은 레위기 23장 서두의 첫 성회인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오메가이다. 그 첫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마지막 안식일은 그의 재창조 능력을 나타낸다. 그 첫 안식일은 "23"이라는 수로, 마지막은 "252"라는 수로 표상된다.

그 두 상징은 레위기 23장을 괄호처럼 양쪽에서 감싸는 역할을 하며, 밀러파의 역사에서도 그러한 양끝의 괄호 역할을 한다. 1798년은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하여 정해진 2,520년의 성취였고, 2,300년은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다. 화이트 자매가 성소로 인도되어 십계명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죄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그분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세 백성을 예표하고 있었다. 성전의 시험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는가를 가려내는 시험이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4.

화이트는 예언자로서, 초기에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신실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이어서 언약궤를 응시하는 신실한 자들의 모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거기서 조명되어 보게 되는 것은 성육신 교리, at-one-ment의 완성이다. 그들은 언약궤를 덮는 두 그룹이 창조와 재창조의 두 안식일을 대표함을 본다. 또한 언약궤의 한쪽에는 252가, 다른 쪽에는 23이 있음을 보고, 그것이 창조와 재창조에 합치함을 인식한다. 곧 23은 신성과 인성의 혼인을 나타내며, 252는 인간이 신성과 결합된 인간으로 변모하는 것의 상징으로 본다.

속죄소는 떼어내어서는 안 되었으므로, 화이트 자매가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은 특별한 계시였고, 예언적으로 그 예증은 그녀가 살던 시대보다 오히려 말세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성전의 시험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처녀된 백성을 그의 성전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이다. 예언적 진리들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로 밝게 비추어진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들을 표상한다.

밀러파의 사십육 년 된 성전은 하나의 단계이다.

'23,'의 인간 성전(그분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은 한 단계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자신의 성전을 일으키심은 하나의 단계이다.

창고는 말라기서의 성전이다.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더럽힘으로부터 창고를 정결하게 하였다.

그 성전은 요시아 왕의 부흥기 동안 대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의 기록을 발견한 장소였다.

느헤미야가 더럽힘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성전은, 화이트 자매가 진술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신성 모독적 더럽힘'으로부터 두 차례 정결하게 하신 바로 그 성전이다.

밀러의 꿈속의 관은 계단의 한 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실한 자들을 지성소로 인도하신 후, 그분은 그들을 화잇 자매로 대표된 바와 같이 언약궤 앞으로 이끄시고, 속죄소를 들어 올려 그들로 하여금 그 안을 보게 하신다. 그들이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성육신의 교리와 제칠일 안식일이 모두 부드러운 광채로 둘러싸여 있음을 본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부드러운 광채로 둘러싸인' 교리들을 인정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화잇 자매와 보조를 맞춘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그 고대의 선지자들 자신이 증언의 일부가 될 때, 그들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며,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은 십사만 사천이다. 화이트 자매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고대 선지자일 것이다. 이는 그녀의 모든 예증이 십사만 사천의 오메가 역사의 알파 역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모든 선지자는 남은 자를 예증하지만, 화이트 자매는 또한 종말의 역사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시초의 역사도 대표한다.

알파 기초 역사에서, 환상 중에 화이트 자매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인도되었다. 거기에 이르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곧 제거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들어 올려져, 화이트 자매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그녀는 십계명을 보았다.

지성소에서 나는 언약궤를 보았다. 그 윗부분과 양쪽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궤의 양 끝에는 아름다운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그 위로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으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천사들 사이에는 금향로가 있었다. 천사들이 서 있는 언약궤 위에는 지극히 찬란한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처럼 보였다. 예수께서 언약궤 곁에 서 계셨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분께 올라오면 향로의 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분은 그 향의 연기와 함께 그들의 기도를 그분의 아버지께 올리셨다. 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책처럼 서로 맞물려 접히는 돌판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것들을 여시자,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보았다. 한 돌판에는 네 계명이, 다른 돌판에는 여섯 계명이 있었다. 첫째 돌판의 네 계명은 다른 여섯 계명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러나 넷째 계명, 곧 안식일 계명은 그 모두보다 더욱 빛났다.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히 하여 지키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안식일은 영광스러워 보였고 - 그 둘레에는 영광의

후광이 둘러 있었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님을 보았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아홉 계명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넷째 계명을 범하듯이 다른 모든 계명도 마음대로 범해도 된다는 말이 된다. 나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바꾸지 않으셨음을 보았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은 그것을 한 주의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꾸었다. 이는 그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저술, 32.

제칠일 안식일 교리는, 빌라델비아적 밀러파 운동으로 시작하여 1856년에 라오디게아적 밀러파 운동으로, 이어 1863년에는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변모한 밀러파 운동의 기초 역사에서의 알파 교리였다. 또한 화이트 자매는 말세의 역사에서, 십사만 사천의 라오디게아적 운동이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적 운동으로 변모할 때의 오메가 교리를 밝힌다. 알파와 오메가의 빛은 제칠일 안식일 교리와 성육신 교리로 대표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길을 부패시켜 그들의 구속주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친다. 이 땅 역사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예언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크게 증가한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아들과 연합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진리가 그들에게 펼쳐진다. 성육신의 교리는 은은한 광채로 빛난다. 그들은 성경이 모든 신비를 열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본다. 빛을 받아들이지도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려 했던 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The Southern Watchman, 1905년 4월 4일.

"성육신의 교리"는 "경건의 비밀"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의 없이 경건의 비밀은 크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16.

"신비"는 신실한 자들이 성육신 교리가 제칠일 안식일의 오메가임을 깨닫게 되는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감추어져 있다.

곧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 비밀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으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26, 27.

감추어졌던 '비밀'을 말하는 본문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이라는 사실은 합당하며, 그 비밀은 말세에 '나타난다'. 예언은 봉인이 풀릴 때 그 빛이 드러나는데, 이는 다니엘서 12장에서 1,260일의 끝, 곧 종말의 때에 예언이 봉인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세대 동안 감추어졌던 그 예언이 봉인 해제되고, 그 예언은 곧 진리로서, 봉인이 풀릴 때 일요일 법령의 때에 이방인들에게 알려지는 '영광'이 된다.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며, 이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에 성취된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때에, 그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7.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표상된 바와 같이, 일곱째 달 열째 날에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일곱째 천사는 또한 셋째 화로 표상되며, 첫째와 둘째 화는 이슬람이었으므로, 셋째 화가 이슬람임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 주어진다. 이슬람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

일곱째 나팔의 역사 속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곧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취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신성과 인성의 결합인 성육신의 교리가 있으며, 십사만 사천에 들 후보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기름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주저하면 어둠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요, 그들이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면 언약궤를 들여다보도록 인도될 것이다. 언약궤 안에서 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의 교리와 성육신의 교리를 발견할 것이다.

이 두 교리가 아무리 중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목하는 바는 알파와 오메가의 빛들 자체가 아니라,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을 묘사하였다는 사실이다. 말세에 이르러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는, 십사만 사천이 열린 언약궤를 우러러보도록 지성소로 인도되어 들어가는 한 시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선지자들이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한다는 믿음과, 화잇 여사가 성경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영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방금 제시한 적용은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14만 4천은, 화잇 여사가 신실한 자들이 1844년 10월 22일에 그렇게 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그때 두 부류가 드러났으니,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들과 들어간 자들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선포로 시선이 다시 돌려졌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도록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분의 오심을 예고한 그 기별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그들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 주는 증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지에 두었다. 사탄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을 오순절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자신들을 두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대인의 제사와 규례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보여 주었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 드러졌고 받아들여졌으며,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옮기셨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죄의 유익을 부여 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전한 흑암 속에 남겨졌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빛을 잃었고, 여전히 그들의 무익한 제사와 예물에 의지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그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행위를 전율하며 바라본다. 그리고 그분이 수치스럽게 학대당하신 역사를 읽으면서, 자신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유대인들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느낀다고 고백한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을 시험하셨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지극한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이들이 그분의 오심에 대한 복된 소식을 조롱했다. 그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미혹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배척하였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로 유익을 얻을 수 없었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한밤중 외침으로부터도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깨달음이 너무나 어두워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 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 빛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보았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곳에서의 예수의 중보로부터 유익을 받을 수 없음을 보았다. 쓸모없는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신 그 구역에 쓸모없는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사탄은 그 기만을 기뻐하며 종교적 외양을 취하고, 자신의 권능과 표징과 거짓 이적으로 역사하여,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그들을 자기 울무에 단단히 묶어 둔다. 초기 문집, 259-261쪽.

화이트 자매, 곧 말세의 고대 여선지자는,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마침내 유대인들이 전적인 흑암에 빠지게 된 점진적 시험의 과정을 지적한다. 이는 자신의 알파 역사인 밀러주의자들의 시대에 동일한 역사가 있었음을 예증하기 위함이다. 시작의 생사(生死)의 시험은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혹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반역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흑암이,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속 반역자들 위에도 임하였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어떤 일의 시작을 통해 그 끝을 예증하신다. 그러므로 1844년 10월 22일의 시험과 관련하여, 화이트 자매가 지성소로 인도되어 열려 있는 언약궤를 응시하였을 때, 이는 십사만 사천이 어린양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완전하고 영원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로 시험을 받게 됨을 가리킨다. 이 사실은, 고대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기록된 증언의 일부가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세 백성을 예증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화이트 자매는 그 두 부류를 모두 예증한다.

깊은 낙담에 빠져 있던 때,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꿈을 꾸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한 성전을 보는 꿈을 꾸었다. 때가 끝날 때 그 성전에 피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밖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었다. 바깥에서 각기 제 길로 다니던 무리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이 구원의 방책이 교활한 속임수이며 사실 피할 만한 위험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성벽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려는 몇몇 사람들을 붙잡아 막기까지 했다.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 나는 군중이 흩어질 때까지, 혹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 수는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고, 너무 늦을까 두려워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서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다. 성전에 도달하려는 조바심에 나를 둘러싼 인파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개의치도 않았다. 성전에 들어서자, 거대한 성전이 하나의 거대한 기둥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었고, 그 기둥에 만신창이가 되어 피를 흘리는 어린양이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이 어린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멍들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그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다.

어린 양 바로 앞에는 높이 마련된 좌석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매우 행복해 보이는 무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비치는 듯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의 음악과도 같은 기쁨의 감사 찬송을 불렀다. 이들은 어린 양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 이제 어떤 기쁜 사건을 즐거운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고, 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는 수치심이 일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듯하여, 어린 양을 마주 서기 위해 기둥을 돌아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성전이 흔들리며,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승리의 환성이 울려 퍼지고, 엄위로운 광채가 그 건물을 밝히 비추더니, 이내 모든 것이 짙은 흑암에 잠겼다. 그 기쁜 사람들은 모두 그 광채와 함께 사라져 버렸고, 나는 밤의 적막한 공포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마음의 격통 가운데 깨어나, 방금의 일이 꿈이었다는 것을 좀처럼 스스로 납득할 수가 없었다. 나의 운명이 이미 확정되었고,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것만 같았다.

이 일 후 곧 나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극도의 절망 속에 앉아 있는 듯하였고, 이와 같이 곰곰이 생각하였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나는 그분께 나아가 그 발 앞에 몸을 던지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아뢰었을 것이다.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나는 항상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풍채와 용모가 아름다운 한 인물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측은히 여기며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예수님을 뵈고자 하는가? 그분은 여기 계시니, 그대가 원한다면 그분을 뵈 수 있다. 그대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이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듣고, 기꺼이 내 자그마한 소유물들, 아끼던 작은 장신구 하나하나까지 모두 챙겨, 나의 안내자를 따랐다. 그는 나를 가파르고 걸보기에는 허술해 보이는 계단으로 이끌었다. 내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혹여 어지러워 떨어질까 하여 시선을 위로 고정하라고 일렀다. 이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던 많은 이들이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떨어졌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계단에 이르러 한 문 앞에 섰다. 이곳에서 나의 인도자는 내가 가져온 모든 것을 두고 가라고 일렀다. 나는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았다. 그는 곧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하였다. 이내 나는 예수님 앞에 섰다. 그 아름다운 용모는 결코 다른 누구의 것과 혼동될 수 없었다. 그 자애와 위엄의 표정은 다른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었다. 그분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순간, 나는 즉시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정황과 내면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낱낱이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의 꿰뚫어 보시는 눈길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분의 시선을 피하려 하였으나, 그분은 미소를 띠고 가까이 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그분의 감미로운 음성은 내 마음을 일찍이 맛보지 못한 행복으로

전을케 하였다. 나는 기쁨이 너무 커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감격에 눌러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 내가 거기 무력하게 누워 있는 동안,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경들이 내 앞을 지나갔고, 나는 마치 천상의 안전과 평안에 이른 듯하였다. 마침내 기력이 돌아와 나는 일어났다. 예수님의 자애로운 눈길은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었고, 그분의 미소는 내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그분의 임재는 내게 거룩한 경외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였다.

"그때 나의 인도자가 문을 열었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섰다. 그는 내가 밖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을 다시 챙기라고 일켰다. 그렇게 하자, 그는 촘촘히 감겨 있는 초록색 끈 하나를 내게 건네주었다. 그는 그것을 내 심장 가까이에 두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에는 품에서 그것을 꺼내어 끝까지 팽팽히 늘이라고 지시하였다. 또 그는 매듭이 생겨 곧게 펴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감긴 채로 한동안이라도 두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나는 그 끈을 내 심장 가까이에 두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말해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이 꿈은 내게 소망을 주었다. 내게는 그 초록색 끈이 믿음을 상징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이 내 영혼에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증언, 제1권, 27-29쪽.

1844년 8월 17일 엑서터 야영 집회가 끝난 때로부터 10월 22일까지는 66일이었다. 그 66일은 한밤중의 외침이 선포된 기간을 표상하며, 열 처녀의 비유의 맥락에서 그때 그 기별을 선포한 자들은 기름을 가진 자들을 표상하고, 그때 그 기별을 선포하지 않은 자들은 기름이 없었다.

비유에서 지체의 때가 시작될 때 혼인이 거행되었다. 법적 혼인이 성립되고 나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의 아버지가 합방을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첫 혼인과 자정에 거행된 두 번째 예식 사이의 부정은 간음으로 간주되었다. 지체의 때는 신랑의 아버지가 일정 기간 동안 신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기 위해 기다리는 데에 달려 있었다. 신부가 임신하였는가?

아버지가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자정의 행렬이 시작되었고, 팔레스타인의 낮에 겪는 숨막히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그 행렬은 밤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부의 들러리, 곧 비유의 처녀들은, 혼인식으로 향하는 행렬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자정의 외침을 기다리며 각자의 등불과 기름을 예비해 두어야 했다. 혼인식은 밤에 거행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엑서터에서는 자정의 외침이 울려 퍼졌고, 당신은 그 행렬을 위하여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두었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들이 그 기별을 가지고 엑서터를 떠났을 때, 그들은 인침받은 한 백성을 표상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1844년 10월 22일 혼인에 들어갈 만큼 충분한 기름을 가졌고,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 66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요일 법령의 닫힌 문에 이르기까지 인침받은 한 기간을 표상한다. 만일 그들이 합당한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화이트 자매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였고, 그녀의 알파 역사에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생사를 가르치는 시험이었다. 말세에는 14만 4천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금 생사를 가르치는 시험이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성전 정결 사건에서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에 착수하셨다. 신적 임재의 거처로 세워진 그 성전은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위한 가시적 교훈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에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였다. 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신성하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다시금 그분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 있는 송고한 소명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토록 자부하던 그 건물이 지니는 의의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어드리지 않았다. 불경한 매매의 소란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의 뜰들은, 감각적 정욕과 불경한 생각의 현존으로 더럽혀진 마음의 성전을 실상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심으로, 죄의 더러움—곧 영혼을 부패시키는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 정욕과 악한 습관들—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말라기 3:1-3 인용. 시대의 소망, 161쪽.

“선지자는 말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Revelation 18:1, 2). 이것은 둘째 천사가 전한 바로 그 기별이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이는 ‘그가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였음이라’(Revelation 14:8). 그 포도주가 무엇인가?—그의 거짓 교리들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에덴에서 사탄이 처음으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곧 영혼의 타고난 불멸성을 되풀이하였다. 이와 같은 많은 오류를 그는 멀리 널리 퍼뜨리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느니라’(Matthew 15:9).”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성전을 신성을 모독하는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셨다.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행위들 가운데 하나도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다. 이와 같이 세상에 경고를 전하는 마지막 사업에서도 교회들을 향하여 두 가지 뚜렷한 부르심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가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으로 마시게 하였도다’(Revelation 14:8)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Revelation 18:4, 5) 하였다.” Selected Messages, book 2, 118.